

배포일시	2011. 07. 13.(수) 11:00(총4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청주기상대	담당자	대장 최기상
		전화번호	043-265-7504

〈충청북도지방 1개월 전망 (7월 하순 ~ 8월 중순)〉

— 7월 하순에는 많은 비가 오겠고, 8월 상순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음 —

- (7월 하순)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따른 집중호우로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8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음.
- (8월 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겠으며 지역에 따라 대기불안정에 따른 집중호우가 있겠음.

【 1개월(7월 하순 ~ 8월 중순) 전망 요약 】

순	평균기온	강수량
7월 하순	평년(25~27℃)과 비슷하겠음	평년(69~107mm)보다 많겠음
8월 상순	평년(25~27℃)보다 높겠음	평년(64~109mm)과 비슷하겠음
8월 중순	평년(24~26℃)과 비슷하겠음	평년(77~104mm)과 비슷하겠음

1. 날씨 전망

-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온도 상태) 평년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해수면 온도 편차 : 7월 첫째 주(6.26~7.2) 0.0℃
- (7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따른 집중호우로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8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지역에 따라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8월 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지역에 따라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2. 최근 날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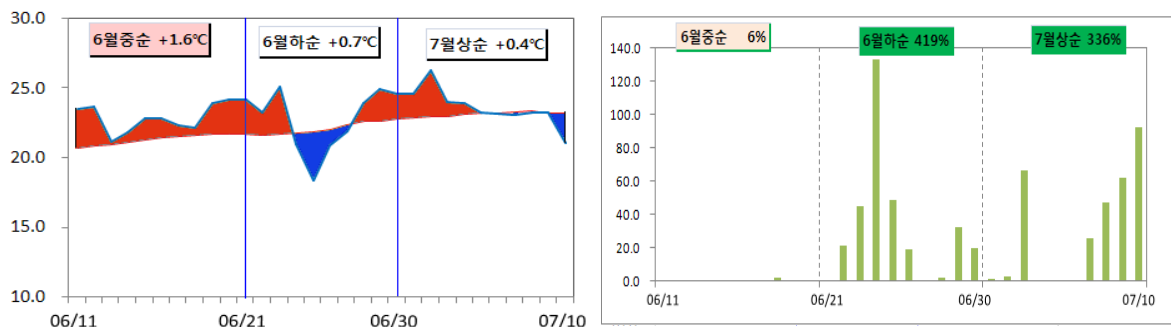
- (6월 중순)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많아 고온현상(11~12일, 14~16일)이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6월 하순)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22~26일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많은 비가 내렸고, 26~27일에는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며 비가 내렸으며, 28~30일 다시 장마전선에 의해 비가 내렸음.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구역이 좁게 형성되어 충청지방을 오르내리면서 비오는 날이 많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 6월 극값 경신 현황

- 일최저기온 최고(6월 23일) : 추풍령 23.1℃(1위), 보은 23.0℃(2위)
- 일평균기온 최고 : 청주 26.7℃(4위, 6월19일), 추풍령 26.3℃(4위, 6월23일)
- 일최다 강수량(6월24일) : 청주 141.0 mm(1위), 보은 181.0mm(1위)

- (7월 상순)에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3일과 7~10일에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전반에는 일시적으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운 날이 많았으나, 후반에는 상층 기압골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 기온이 떨어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 ※ 최근 1개월(6.11~7.10일)은 장마시작일(6월22일)부터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서 남북진동하여 충청북도지방은 지속적인 비로인해 강수량(청주 554.1mm 1위, 추풍령 415.0mm 3위, 충주 798.1mm 1위, 제천 810.2mm 1위, 보은 718.0mm 1위)과 강수일수(청주 19일 1위, 제천 16일 3위, 보은 18일 2위)의 극값을 기록하였으며, 청주의 연속발생일강수량 지속일수(6.22~7.4)는 13일로 관측 이래 최고 2위를 기록.



최근 1개월 충청북도지방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2011.06.11 ~ 07.10)

-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7월 하순~8월 중순)
-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사례(7월 하순~8월 중순)

【 알 림 】

- 1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1년 7월 22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문의는 청주기상대(043-265-7504)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7월 하순~8월 중순)

○ 평균 기압계

-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확장함에 따라 장마전선은 만주지방으로 북상하여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됨. 8월 중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서히 약화되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기압골과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가며 많은 비가 내림.
- 장마전선이 만주지방으로 북상하거나 소멸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남.
-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적인 뇌우소나기들이 발생하며, 강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함.
-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덜 확장하여 발달하는 경우에는 태풍이 북상하여 영향을 주기도 함.

○ 바람

- 전반적으로 남서풍이 우세함.

○ 태풍

- 0.8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7월 하순:0.1개, 8월 상순:0.4개, 8월 중순:0.3개)을 미침.

○ 폭염과 열대야

- 폭염과 열대야는 각각 평균 7.0일, 4.6일 나타나며 8월 상순에 가장 많이 나타남.

※ 폭염/열대야 : 7월 하순 2.3일/1.4일, 8월 상순 3.0일/1.8일, 8월 중순 1.8일/1.4일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 평균기온 : 25.8℃ (7월 하순 25.7℃, 8월 상순 26.4℃, 8월 중순 25.3℃)
- 평균 강수량 : 266.3mm (7월 하순 74.0mm, 8월 상순 84.3mm, 8월 중순 108.0mm)

○ 고온현상

- (2010년 7월 하순~8월 중순)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최저기온(평균최저기온 23.1℃ 1973년이후 최고 1위)이 기간 중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아 열대야(열대야 청주 13일, 10년 평균대비 +11.7일)가 지속되었음.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상품의 매출이 대폭 신장(전년 동기 대비 에어컨 120%, 선풍기 75% 매출 증가) 되고, 해수욕장이 장기간 호황을 이루는 등의 경제적 효과도 컸음.

○ 집중 호우

- (2002년 8월 상순) 중국 화남지방에 상륙한 제 12호 태풍 「간무리」의 약화된 열대저압부로부터 남서쪽의 발달한 기압골을 따라 계속 수증기가 유입되어 8월 6일~7일 충청북도 북부지역에 집중호우와 평균 강수량은 282.6mm(평년대비 324%)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으며,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6일은 청주 135.5mm, 7일은 충주 227.0mm, 제천 275.5mm, 충주 227.0mm)한 지역이 많았음.

○ 저온현상

- (2003년 7월 하순~8월 중순) 강하게 발달한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평년보다 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잦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음. 6월부터 시작된 저온현상은 8월까지 이어졌음. (최근 10년간 충청북도 극값 : 평균 최저기온 23.2℃ 최저 1위, 평균최고기온 27.9℃ 최저 2위, 평균 최저기온 19.7℃ 최저 1위)로 기온이 낮았음.

○ 일조량 부족

- (2010년 7월 하순~8월 중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으며, 태풍 ‘덴무’의 영향 및 잦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일수(20.3일, 1973년이후 3위)가 많았으며, 일조부족(122.7시간, 1973년이후 최저 4위)으로 인한 가을배추를 적기에 파종하지 못하고 생육 장애로 인해 김장김치 파동이 일어났음.